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동률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

7년간의 미국 유학생활 동안 인종 차별을 느낀 적은 많지 않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주립대학이 대부분 소도시에 위치한 데다 주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학도시라 외국인들에게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다.

그런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 남부를 여행하던 중 일어났다. 미시시피 어느 시골에서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은 뒤 화장실을 찾은 나는 깜짝 놀라게 된다. 화이트(white)라고 쓰인 화장실이 전면에 있고, 컬러(colors)라고 적힌 화장실은 주유소 건물 뒤편에 있었다. 뒤편 화장실은 불결하기 그지없었다. 잠깐 망설이다 우리 가족은 백인 화장실을 이

한 교포가 울고 있다

용했다.

다행히 주유소 측에서 시비를 걸지 않아 무사히 빠져나왔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여행 내내 흑인들의 슬픔을 생각하게 됐다. 남북전쟁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났지만 미국 남부 오지에 가면 아직도 이 같은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남부'는 단순히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을 넘어서는 복잡미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예해방, 남북전쟁 패배 등으로 인해 남부는 양기(북부)에 대해 뿌리깊은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남부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연상하며 우아한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된 플랜테이션 농장주의 거대한 저택과 화려한 파티 등을 상상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종 차별과 가난에 찌들린 암울한 지역을 떠올린다.

남부에 대한 북부의 경멸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심하다. 북부 백인들은 게으른 남부 백인을 일컬어 화이트 트래쉬(white trash), 레드 넥(red neck)이라고 비웃는다.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사람'이란 뜻이다. '레드 넥'은 '목덜미가 빨갛게 익었다'는 의미로, 별에 탄 두지한

백인 단순 노동자를 뜻한다.

또 남부의 여러 주들을 두고 '바이벨 벨트'라고 비웃는다. 창조론을 지지하는 골수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실제로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남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놀랄 때 급히 나오는 "오 마이 갓"조차도 불경스럽다며 문제삼는 이가 있을 정도다.

반대로 골수 남부인들의 양기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또한 만만찮다. 필자가 남부 어느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 중 뉴욕 타임스 기사를 인용하자 일부 참석자가 "양키신문을 언급 말라"고 항의해 당황했던 기억도 있다.

불과 195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남부는 북부에 한 원료를 공급하고 가공품을 비싼 값으로 되사는 전형적인 식민지형 경제였다. 정서적, 문화적으로 북부에 대한 우월주의에 취해 있던 남부로서는 엄정 자존심 상하는 구조였다.

남부가 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 독일과 일본의 자동차 공장들이 크게 기여했다. 현대, 기아차도 남부에 따리를 틀고 이 지역 경제발전에 대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남부 주들이 점차 살만해졌고 '양

키들이 목화밭을 구경오던 시절에서 이제는 살기 위해 남부로 온다'는 말들이 퍼들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북쪽으로 이주한다. 미주리, 네브래스카 등등 중북부 공장지대가 커지면서 남부 흑인들의 대규모 인구 유입이 시작된 것이다.

흑인 시위태로 지구촌의 관심을 모은 미주리 피겨스키도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 있다.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흑인 인구가 급증, 전형적인 백인 거주 지역이 무너지면서 흑백 간의 갈등이 심화한 것이 이번 사태의 숨겨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백인에 대한 흑인들의 적대감이 점차 동양인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태평양 건너 피겨스키의 상황은 미국 생활을 경험한 나로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

불만 가계를 무대로 한국TV와 인터뷰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교포들의 모습에서 나는 그들의 외로움, 고통 등을 실감한다. 초록이 아워어져 가는 9월, 태평양 건너 들려오는 한 교포의 울음소리에 나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다.

의료칼럼

만성 B형 간염 치료, 이길 수 있는 싸움



박희
순천한국병원 원장

“겉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기분입니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0대 남성 만성 B형간염 환자가 최근 필자에게 한 말이다.

아직까지 만성 B형간염은 완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아니기에 낙담이 크다고 했다. 이 환자는 태어났면서 출산과정에 어머니로부터 만성 B형간염을 물려받은 수직 감염환자다. 출생 바이러스 보균자로 지내다 올 초 회사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상승한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제를 용법·용량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말을 덧붙였다. “만성 B형간염 치료는 긴 과정이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실제로 만성 B형간염 치료는 현재와 같이 바이러스 억제력이 강력하고, 치료 방법이 편리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매우 힘겨운 싸움이었다.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간에 상처가 생기면서 간 표면이 딱딱해진다. 이를 ‘간 섬유화’라고 하며, 간염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간경변은 간 섬유화가 진행된 상태다. 실제로 국내 간염 환자 10명 중 7~8명이 만성 B형간염 환자다.

과거 항바이러스제 개발 전에는, 의료진들도 속수무책으로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으로, 간경변이 간암으로 악화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항바이

러스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전세는 1차적으로 역전되었다.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여 병의 자연경과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점점 발달하면서, 정기간 치료에도 내성 발현율이 낮은 치료제가 등장했다. 그 결과 만성 B형간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2013년 미국 간학회에서는 장기간 항바이러스 치료시 한 번 손상된 간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최근의 만성 B형간염 치료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됐다. 만성 B형간염 환자라도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경과를 모니터링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검사를 통해 본인이 만성 B형간염 환자인 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것이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치명적인

간질한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관련 여러 임상 연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 중국에서 탄생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병법서인 손자병법에는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임하는 것’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 지는 모르나 만성 B형간염 환자로 알려진 일본 굴지의 IT 기업 소프트뱅크의 재일교포 CEO인 손정의 회장도 간염으로 일에서 물러나 치료를 받아야 했을 때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대 신생아 백신접종사업을 통해 수직 감염환자들은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국내에는 약 200여만명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명한 것은 만성 B형간염과의 싸움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다. 당부하건대 정기 검진과 항바이러스 치료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란다.

기 고

환경관리를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천제영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민선 6기 전남도는 도정의 목표를 ‘매력있고 온정이 넘치는 활기찬 전남’으로 정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남 동부권에 집중된 기존 주력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돌파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에 따르면 여수 석유화학 산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일 가스 상용화와 중동의 화학제품 생산, 중국의 정제설비 가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광양제철소는 후발주자인 중국의 가격 및 물량 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6기 전남도는 철강과 화학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와 별도로 동부권의 환경문제 해결과 민원 해소,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기존 동부출장소를 격상시켜 동부지역본부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 특성상 대기중으로의 광범위한 확산 이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동부지역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여수, 순천, 광양, 경남 하동을 묶어 지난 1999년 12월부터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중이다. 최근 구미 불산 누출사고, 여수 대립산업 폭발사고 등 화학산단에서 대규모 사고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대비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됐

다. 여수에도 올해부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전남도, 여수시가 공동 참여해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센터는 사고수습, 사고원인조사, 주민건강환경영향조사, 인명 구조 및 안전조치, 환자 구급, 방재활동, 기술지도, 주민대피 및 장비지원, 복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별도로 최근 도와 시·군간 환경관리권 문제로 일부 논쟁이 있는데 일부 주장에 앞서 환경관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환경관리권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다. 다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은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오염 등 관련법에 의거해 인허가를 받아 공장 가동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도록 돼 있다. 공장에서 배출하는 양에 따라 수질과 대기의 경우 1종부터 5종까지 세분화시

켜 1종에서 3종까지는 도에서 관장하고 4종과 5종은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이낙연 지사는 3종까지를 시·군에 위임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배출업소별로 전남도와 시·군이 환경관리권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오염물질이 종류에 따라 대기중이나 공공수역으로의 확산 이동함으로써 광역적 관리가 필요한 대기·수질 오염물질은 전남도에서,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확산·이동이 제한적인 소음진동·악취·폐기물·토양오염 등은 종별 구분없이 1종부터 5종까지 전체를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와 시·군간 관리권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도와 시·군이 각자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환경보전을 통해 쾌적한 전남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일 것이다.

社 說

기아차 파업사태 조기 해결 지혜 모아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소형차 생산공장을 짓기로 해 광주 경제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2일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제17차 본교섭을 열어 올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노사는 지난달 12차례 실무협의와 16차례 본교섭을 거치면서 단체협상 관련 11개 사항만 추진했을 뿐 임금 관련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다. 노조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과 이를 수용한 다른 기업들 사례를 들어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이는 지침에 불과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22일과 28일 두 차

레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광주공장은 1250대의 생산 차질과 2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특근도 중단됐다. 문제는 협상 경색으로 입단협이 추석을 넘기면서 파업사태가 상당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파업 장기화는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기아차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광주 경제의 엔진인 기아차 파업은 협력업체와 관련 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

더욱이 이번 파업은 광주공장의 생산 물량 정제로 이어질 수 있는 멕시코 공장 설립 발표와 맞물려 부담이 크다.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아차 노사는 추석 연휴 전이라도 입단협을 조기 타결해 파업사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보다가 더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기초생활비 부당 지급 직무유기 아닌가

지난 4년7개월간 광주·전남지역 거주자 중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가 무려 3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 누수 현상은 저지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강기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내 각 저지단체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대상자 3069명에게 지난 2010년1월부터 금년 7월31일까지 17억8491만 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광주지역 부정수급자는 1406명(12억2699만 원), 전남은 1663명(6억5792만 원)에 달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형세 낭비는 부정하게 기초생활비를 타낸 수급자도 문제지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급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직무유기나 다름 없을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비 환수 조치부터 나서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시·군·구로 하여금 부정수급자가 더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실태조사 인력 확충과 함께 '실시간 수급 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 지자체마다 복지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세 누수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크게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최근 서울 시내 남녀·고·고생 129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를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80명(62%)이 '불신하는 편이다'(64명), 혹은 '매우 불신한다'(16명)고 답했다. 반면 '한국사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16명(12.4%)에 그쳤다.

사회를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짓말 하지 않고 약속 지키면 손해 보는 세상',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욕만 채운다'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약속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의 뿌리에는 법이나 원칙을 어겨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고교생 10명 가운데 7명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응답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나아가거나 변화된 게 없다는 얘기도.

자신이 공자에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자공이 그 가운데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나고 묻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또 하나를 버린다면 뭐냐고 묻자 식량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자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무신불립이란 곧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말로 논어 가운데서도 유명한 구절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데는 정치인들의 한심한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누구를 가장 불신하는 나?"는 질문에 정치인이 1위를 차지했다. 경찰이 2위지만 그 차이가 상당하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 학생들이 수장된 일은 작은 시작이었고, 그 후 다섯달이 다 되도록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필설로 보여주지 못할 지경이다.

투명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환골탈태 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이 갖는 불신의 병은 치유하기 힘들다. /최재호 사회부장 lion@

무신불립(無信不立)

인터넷 추석 승차권 예매 시기 주의하세요

추석명절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때쯤이면 마음은 벌써 고향이요, 손발은 선물준비와 교통편을 알아보기위해 바쁘다.

보통 교통정체를 피하고 편안한 귀성을 위해 찾는 것이 기차다. 그런데 이러한

귀성객들의 마음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극성이라고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승차권을 구입하려다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예전에는 승차권 가격보다 몇 배 비싼 압표를 파는 행위가 성행했다. 요즘엔 인

터넷을 통한 직거래 이용 때 사기를 친다. 대표적 수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승차권 판매 정보를 보여주고, 접근하는 소비자에게 개인계좌 송금 혹은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다. 그러나 입금 또는 결제 후에는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을 두절해 버린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정한 판매처 외의 불법 경로를 통해 구입한 승차권은 보상받기 힘들 뿐 아니라

승차 시 1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피해가 우려된다. 승차권은 정상적 경로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좋다.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병합 승차권 구입, 구매 취소로 인한 잔여석 구입 등은 조심해야 한다. 추석 고향 가는 길에 사기꾼들로 인해 마음 상한 사람이 없길 바란다.

▲김도연·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생 활 부 2200-661	광 고 매 개 링 국 227-96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 론 매 체 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